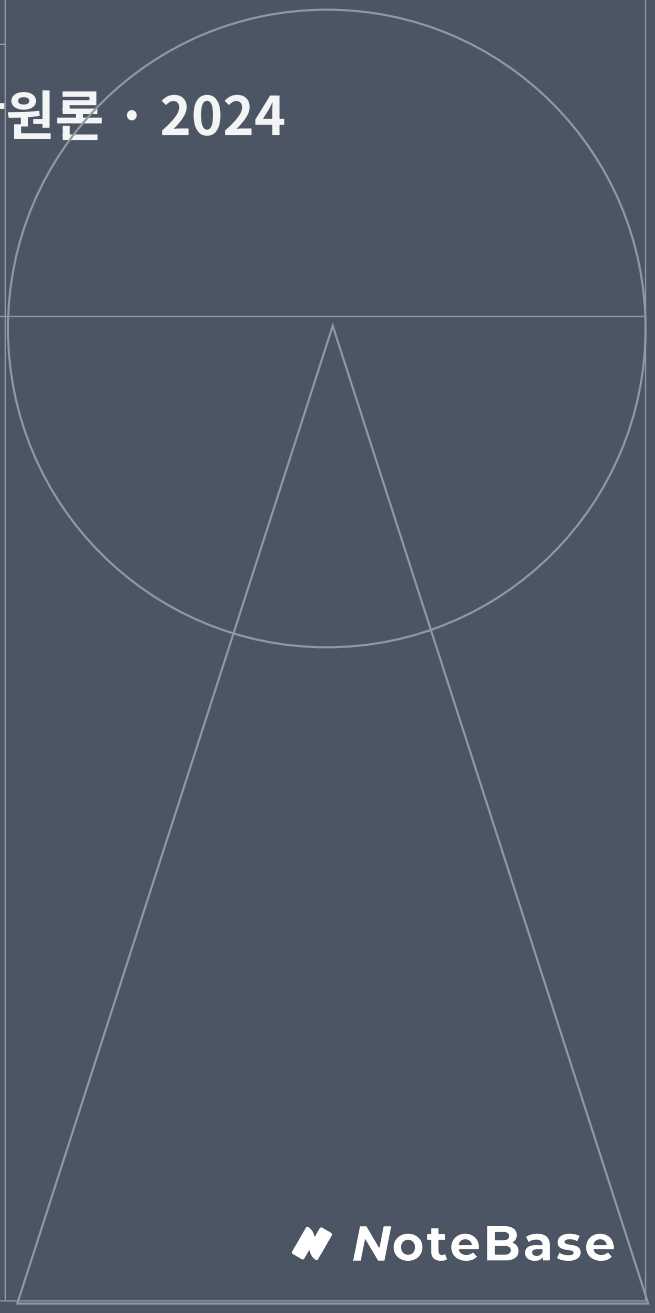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24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24

문 1. 거시경제 순환모형에 대한 <보기>의 설명에서 (가)~(다)에 들어갈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해외 부문을 포함하는 소득 순환모형에서 저축과 조세, 수입은 (가) 이며 투자와 정부지출, 수출은 (나) 이다. 이때 일정 기간 국가경제가 생산한 생산물의 총가치를 생산국민소득, 경제주체가 구입하여 사용한 생산물의 총가치를 (다) 이라고 한다.

① (가): 주입, (나): 누출, (다): 지출국민소득
② (가): 주입, (나): 누출, (다): 분배국민소득
③ (가): 누출, (나): 주입, (다): 지출국민소득
④ (가): 누출, (나): 주입, (다): 분배국민소득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거시경제 순환모형에서 누출과 주입의 구분, 그리고 생산국민소득과 지출국민소득의 의미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누출은 소득이 국내 재화·서비스 지출로 이어지지 않고 순환 밖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으로 저축·조세·수입이 해당한다. 주입은 순환에 새로운 지출을 더해 주는 흐름으로 투자·정부지출·수출이 해당한다. 생산국민소득은 일정 기간 국내 경제가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부가가치 합계이고, 지출국민소득은 경제주체가 구입하여 사용한 최종생산물의 지출 합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를 주입, (나)를 누출로 본 부분은 수입과 수출의 방향을 거꾸로 잡은 것이다. 수입은 국내 지출이 해외 생산물로 빠져나가므로 누출이고, 수출은 해외 수요가 국내 생산물에 지출되므로 주입이다. 또한 (다)를 지출국민소득으로 본 점은 맞다.
② X: 수입은 누출이고 수출은 주입이므로 앞부분은 맞다. 틀린 부분은 (다)를 분배국민소득이라고 한 표현이다. 경제주체가 구입하여 사용한 생산물의 총가치는 지출국민소득이다.
③ O: 저축·조세·수입은 누출이고 투자·정부지출·수출은 주입이다. 또 경제주체가 구입하여 사용한 생산물의 총가치는 지출국민소득이므로 세 칸의 연결이 모두 옳다.
④ X: (가)를 누출, (나)를 주입으로 본 부분은 맞다. 틀린 부분은 (다)를 분배국민소득이라고 한 표현이다. 분배국민소득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 임금·이자·지대·이윤 등으로 분배된 측면을 말한다.

오답 포인트

수입과 수출을 외국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한 묶음으로 외우면 누출과 주입을 반대로 고르기 쉽다. 또 생산·분배·지출 국민소득은 모두 같은 국민소득을 다른 측면에서 본 개념이지만, 문제 문구가 '구입하여 사용한 생산물의 총가치'라고 했을 때는 지출 측면을 바로 떠올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환모형 문제에서는 먼저 국내 지출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누출, 외부에서 국내 지출을 더하면 주입이라고 정리한다. 그다음 '생산한 것'이면 생산국민소득, '분배된 소득'이면 분배국민소득, '구입하여 지출한 것'이면 지출국민소득으로 대응시키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저축·조세·수입은 누출, 투자·정부지출·수출은 주입, 구입해 쓴 총가치는 지출국민소득이다.

NoteBase

문 2. 수요와 공급곡선이 <보기>와 같을 때, 정부가 $P = 100$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에서 나타나게 될 현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공급곡선: $Q = -20 + P$
• 수요곡선: $Q = 400 - 2P$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① 120 단위 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② 120 단위 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③ 140 단위 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④ 140 단위 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격상한제가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될 때 수요량과 공급량을 각각 계산해 초과수요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주어진 식은 공급곡선 $Q = -20 + P$, 수요곡선 $Q = 400 - 2P$이다. 정부가 가격상한제를 $P = 100$에 설정한 상황에서 공급량과 수요량을 각각 구한 뒤 두 값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가격이 $P = 100$으로 고정되면 공급량은 공급곡선에, 수요량은 수요곡선에 그대로 대입한다. 초과수요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클 때의 차이이므로 초과수요=Q_d-Q_s를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공급량은 $Q_s = -20 + 100 = 80$이다.
2. 수요량은 $Q_d = 400 - 2 \times 100 = 200$이다.
3. 초과수요는 $Q_d - Q_s = 200 - 80 = 120$이다. 따라서 이 시장에서는 120단위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O. 계산 결과 수요량은 200, 공급량은 80이므로 120단위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2번: X. 120단위라는 크기 자체는 맞지만 방향이 틀렸다.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크므로 초과공급이 아니라 초과수요이다.
3번: X. 초과수요라는 방향은 맞지만 크기가 틀렸다. 140은 계산되지 않으며 올바른 차이는 $200 - 80 = 120$이다.
4번: X. 크기도 140로 틀리고 방향도 초과공급으로 잘못 판단했다. 올바르게는 120단위의 초과수요이다.

오답 포인트

가격상한제가 나오면 무조건 초과수요라는 개념만 떠올리고 실제 수치를 계산하지 않으면 3번처럼 크기를 틀리기 쉽다. 또 수요량과 공급량의 대소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2번이나 4번처럼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을 뒤바꾸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규제 문제는 주어진 규제가 적용된 가격을 먼저 식에 대입해 Q_d와 Q_s를 각각 구한 뒤,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서 초과수요인지 초과공급인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가격상한제가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NoteBase

문 3. 어느 독점기업의 총비용이 $TC = 5 + 2Q + 2Q^2$이고, 시장수요곡선이 $P = 32 - Q$일 때, 이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과 독점이윤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① 이윤극대화 생산량: 4, 독점이윤: 60

② 이윤극대화 생산량: 4, 독점이윤: 70

③ 이윤극대화 생산량: 5, 독점이윤: 60

④ 이윤극대화 생산량: 5, 독점이윤: 7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MR = MC$를 이용해 생산량을 구한 뒤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로 독점이윤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총비용 $TC = 5 + 2Q + 2Q^2$, 수요곡선 $P = 32 - Q$이다.
구해야 할 값은 이윤극대화 생산량과 독점이윤이다.
독점기업은 가격이 아니라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같게 두어 생산량을 정한다.

사용할 공식

총수입은 $TR = P \times Q = (32 - Q)Q = 32Q - Q^2$이고, 한계수입은 $MR = \frac{dTR}{dQ} = 32 - 2Q$이다.
한계비용은 $MC = \frac{dTC}{dQ} = 2 + 4Q$이다.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MR = MC$에서 결정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TR = (32 - Q)Q = 32Q - Q^2$
$MR = 32 - 2Q$
$MC = 2 + 4Q$
이윤극대화 조건 $MR = MC$를 적용하면 $32 - 2Q = 2 + 4Q$이므로 $30 = 6Q$, 따라서 $Q = 5$이다.
이때 가격은 $P = 32 - 5 = 27$이다.
총수입은 $TR = 27 \times 5 = 135$이다.
총비용은 $TC = 5 + 2 \times 5 + 2 \times 5^2 = 5 + 10 + 50 = 65$이다.
따라서 독점이윤은 $\pi = TR - TC = 135 - 65 = 7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틀리다. 선지의 잘못된 부분은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4로 본 점이다. $Q=4$이면 $MR=24$, $MC=18$이어서 아직 $MR>MC$이므로 생산을 더 늘려야 한다. 올바르게는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5이고 독점이윤은 70이다.
2번: 틀리다. 독점이윤 70은 맞지만 선지의 잘못된 부분은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4로 본 점이다. 독점기업의 최적 생산량은 $MR=MC$에서 정해지므로 올바르게는 생산량이 5이다.
3번: 틀리다. 이윤극대화 생산량 5는 맞지만 선지의 잘못된 부분은 독점이윤을 60으로 본 점이다. $Q=5$에서 $TR=135$, $TC=65$이므로 올바르게는 독점이윤이 70이다.
4번: 맞다. $MR=MC$에서 $Q=5$가 나오고, 이때 $P=27$, $TR=135$, $TC=65$이므로 독점이윤은 70이다.

오답 포인트

독점기업 문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수요곡선 $P=32-Q$를 그대로 한계수입으로 쓰는 점과, 생산량을 구한 뒤 총비용 계산에서 고정비 5를 빠뜨리는 점이다. 이 문제도 P와 MR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TC 계산을 서두르면 4번이 아닌 다른 선지를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 계산형 문제는 수요곡선으로 먼저 TR을 만든 뒤 MR을 구하고, 비용식에서 MC를 구해 $MR=MC$로 생산량을 정한다. 그다음 수요곡선에 생산량을 대입해 가격을 구하고, 마지막에 $TR-TC$로 이윤을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독점의 생산량 결정은 $P=MC$가 아니라 $MR=MC$이고, 독점이윤은 항상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다.

NoteBase

문 4. 어떠한 경제의 생산함수는 $Y = AK^{1/3}L^{2/3}$이다. y와 $k^{1/3}$ 값이 <보기>와 같을 때, 각 국가의 기술 수준(A)은? (단, Y는 생산량, A는 기술 수준, K와 L은 각각 자본과 노동, y와 k는 각각 $y = Y/L$와 $k = K/L$로 정의한다.)

<보기>

구분	y	$k^{1/3}$	A
갑(甲)국	1.00	1.00	
을(乙)국	0.75	1.25	
병(丙)국	0.20	0.50	

① 갑국: 1, 을국: 0.6, 병국: 0.2

② 갑국: 1, 을국: 0.6, 병국: 0.4

③ 갑국: 1, 을국: 0.8, 병국: 0.4

④ 갑국: 2, 을국: 0.8, 병국: 0.4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산함수 $Y = AK^{1/3}L^{2/3}$를 노동 1인당 생산함수로 바꾼 뒤 각 국가의 기술수준 A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각 국가의 y와 $k^{1/3}$이다.
구해야 할 값은 각 국가의 기술수준 A이다.
$y = Y/L$, $k = K/L$이므로 원래 생산함수를 노동 1인당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

사용할 공식

노동 1인당 생산함수는 $y = Ak^{1/3}$이다.
따라서 $A = \frac{y}{k^{1/3}}$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이미 y와 $k^{1/3}$를 직접 주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A를 바로 역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먼저 $Y = AK^{1/3}L^{2/3}$를 L로 나누면 $y = Y/L = A(K/L)^{1/3} = Ak^{1/3}$이다.
갑국은 $A = 1.00/1.00 = 1$이다.
을국은 $A = 0.75/1.25 = 0.6$이다.
병국은 $A = 0.20/0.50 = 0.4$이다.
따라서 각 국의 기술수준은 갑국 1, 을국 0.6, 병국 0.4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병국을 0.2로 본 부분이 틀리다. 병국은 $0.20/0.50 = 0.4$이므로 올바르게는 갑국 1, 을국 0.6, 병국 0.4이다.
② O: 갑국은 $1.00/1.00 = 1$, 을국은 $0.75/1.25 = 0.6$, 병국은 $0.20/0.50 = 0.4$이므로 제시값이 모두 맞다.
③ X: 을국을 0.8로 본 부분이 틀리다. 을국은 $0.75/1.25 = 0.6$이므로 올바르게는 0.8이 아니라 0.6이다.
④ X: 갑국을 2로 본 부분이 틀리다. 갑국은 $1.00/1.00 = 1$이므로 올바르게는 2가 아니라 1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생산함수를 1인당 형태로 바꾸지 않고 숫자만 바로 대입하는 데 있다. 특히 병국의 0.2는 y 값만 보고 $k^{1/3}$로 나누지 않았을 때 나오기 쉬운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코브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y, k가 주어지면 먼저 1인당 생산함수로 바꾼다. 그다음 $A = \frac{y}{k^{1/3}}$를 적용해 각 값을 계산하고 선지와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코브더글러스형에서 $Y = AK^{\alpha}L^{1-\alpha}$이면 1인당 생산함수는 $y = Ak^{\alpha}$가 된다.

NoteBase

문 5. 어떠한 공원에서 바비큐 기계를 임대해주는데, 해당 기계의 임대 공급곡선이 $P = 5 + 0.1Q$이다. 이 바비큐 기계의 수요곡선은 $P = 20 - 0.2Q$이다. 바비큐 기계마다 연기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루 3 화폐단위 만큼에 해당하는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균형거래량과 사회적으로 최적인 거래량은? (단, P는 화폐단위로 표시한 대당 하루 임대 가격이고, Q는 기계 대수 단위로 표시한 하루 임대 수량이다.)

①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균형거래량: 50, 사회적으로 최적인 거래량: 40

②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균형거래량: 50, 사회적으로 최적인 거래량: 45

③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균형거래량: 60, 사회적으로 최적인 거래량: 40

④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균형거래량: 60, 사회적으로 최적인 거래량: 45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부비용이 있는 시장에서 사적 균형거래량과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각각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공급곡선 $P = 5 + 0.1Q$, 수요곡선 $P = 20 - 0.2Q$, 기계 1대당 외부비용 3이다. 구해야 할 값은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균형거래량과 사회적으로 최적인 거래량이다.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사적 한계비용에 외부비용을 더한 사회적 한계비용으로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균형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같게 두어 구한다. 즉 $20 - 0.2Q = 5 + 0.1Q$이다.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수요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을 같게 두어 구한다. 외부비용이 대당 3이므로 사회적 한계비용은 $5 + 0.1Q + 3 = 8 + 0.1Q$이다. 따라서 $20 - 0.2Q = 8 + 0.1Q$를 사용한다.

계산 과정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균형거래량은 $20 - 0.2Q = 5 + 0.1Q$에서 $15 = 0.3Q$이므로 $Q = 50$이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거래량은 $20 - 0.2Q = 8 + 0.1Q$에서 $12 = 0.3Q$이므로 $Q = 40$이다. 따라서 왼쪽 값은 50, 오른쪽 값은 4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O.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균형거래량은 50이고, 사회적으로 최적인 거래량은 외부비용 3을 더한 사회적 한계비용으로 계산하면 40이므로 두 값이 모두 맞다.
2번: X.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균형거래량 50은 맞지만 사회적으로 최적인 거래량은 45가 아니다. 45는 외부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계산에서 나오는 오답이다. 올바르게는 40이다.
3번: X. 사회적으로 최적인 거래량 40은 맞지만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균형거래량은 60이 아니다.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을 같게 두면 50이 나온다. 올바르게는 50이다.
4번: X.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균형거래량도 60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최적인 거래량도 45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각각 50과 40이다.

오답 포인트

외부비용이 있으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사적 균형보다 작아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특히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구할 때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다시 맞추거나, 외부비용 3을 가격에 더하지 않고 임의의 수량을 고르면 45 같은 오답이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부효과 계산형 문제는 먼저 사적 균형을 구하고, 그다음 외부비용이면 공급곡선 위로 비용만큼 올린 사회적 한계비용을 만들어 다시 수요곡선과 맞춘다. 외부편익이면 반대로 수요곡선을 위로 올려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음의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크므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사적 균형거래량보다 작다.

NoteBase

문 6. A국가의 전체 인구는 6,000만 명, 15세 이상 인구는 5,000만 명, 경제활동인구는 3,000만 명, 실업자는 300만 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던 실망실업자(구직단념자) 중 500만 명이 구직활동을 재개하여 그중에 300만 명이 일자리를 구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은?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경제활동참가율: 60%, 고용률: 54%, 실업률: 10%

② 경제활동참가율: 70%, 고용률: 54%, 실업률: 14%

③ 경제활동참가율: 70%, 고용률: 60%, 실업률: 10%

④ 경제활동참가율: 70%, 고용률: 60%, 실업률: 14%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구직단념자가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할 때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용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15세 이상 인구 5,000만 명, 기존 경제활동인구 3,000만 명, 기존 실업자 300만 명이다.
기존 취업자는 3,000만 명 - 300만 명 = 2,700만 명이다.
구직단념자 500만 명이 구직활동을 재개하면 모두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그중 300만 명이 취업하므로 나머지 200만 명은 실업자가 된다.

사용할 공식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 100이다.
고용률은 (취업자)/(15세 이상 인구) × 100이다.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의 변화를 모두 제시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새로운 경제활동인구는 기존 3,000만 명에 구직활동을 재개한 500만 명을 더한 3,500만 명이다.
2. 새로운 취업자는 기존 2,700만 명에 새로 취업한 300만 명을 더한 3,000만 명이다.
3. 새로운 실업자는 기존 300만 명에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한 200만 명을 더한 500만 명이다.
4. 경제활동참가율은 $\frac{3,500}{5,000} \times 100 = 70\%$이다.
5. 고용률은 $\frac{3,000}{5,000} \times 100 = 60\%$이다.
6. 실업률은 $\frac{500}{3,500} \times 100 \approx 14.3\%$이므로 반올림하면 14%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X. 60%, 54%, 10%는 변화 이전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이다. 구직단념자 500만 명의 재진입과 그중 300만 명의 취업을 반영하지 못했다.
2번: X. 경제활동참가율 70%와 실업률 14%는 맞지만 고용률을 기존 값인 54%로 둔 것이 틀렸다. 고용률은 새로운 취업자 3,000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60%가 된다.
3번: X. 경제활동참가율 70%와 고용률 60%는 맞지만 실업률 10%가 틀렸다. 새로 구직활동을 시작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200만 명도 실업자에 포함되므로 실업자는 500만 명이 된다.
4번: O. 경제활동참가율 70%, 고용률 60%, 실업률 14%가 모두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구직단념자가 구직활동을 재개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로 옮겨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또한 500만 명 전원이 취업한 것이 아니라 300만 명만 취업했고 200만 명은 실업자로 남는다는 점을 놓치면 실업률을 10%로 잘못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통계 계산형 문제는 먼저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인구가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인원 수부터 다시 그린 뒤 비율을 계산하면 된다. 특히 구직 여부가 경제활동인구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 기준, 고용률은 취업자 기준, 실업률은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 기준이다.
구직단념자가 다시 구직하면 경제활동인구로 복귀한다.

NoteBase

문 7. 일반적인 로렌츠 곡선에서 완전균등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을 A, 로렌츠 곡선 아래 영역의 면적을 B로 나타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A 영역의 면적이 증가하면 소득 불평등이 낮아진다.

② 지니계수는 (A+B) 영역의 면적에 대한 A 영역의 면적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③ 지니계수가 높은 국가는 더 균등한 소득 분배를 갖는다.

④ 지니계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질 때 값이 1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렌츠 곡선에서 면적 A, B가 무엇을 뜻하는지와 지니계수가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로렌츠 곡선은 누적 인구 비율과 누적 소득 비율의 관계로 소득 분포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A는 완전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이므로 불평등이 커질수록 커진다. 지니계수는 전체 면적 $A + B$ 중 A가 차지하는 비율인 $A/(A + B)$로 계산하므로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더 불균등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A 영역의 면적이 커질수록 로렌츠 곡선이 완전균등선에서 더 멀어진다. 틀린 부분은 '소득 불평등이 낮아진다'이다. 실제로는 소득 불평등이 높아진다.
② O: 지니계수는 완전균등선 아래 전체 면적 $A + B$ 중에서 불평등을 나타내는 A 영역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2번 설명이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지니계수가 높은 국가는 더 균등한 소득 분배를 갖는다'이다. 실제로는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더 불균등하다.
④ X: 틀린 부분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질 때 값이 1이다'이다. 실제로는 완전평등이면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하므로 A가 0이 되어 지니계수도 0이다.

오답 포인트

A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방향을 반대로 외우면 ①과 ③을 함께 틀리기 쉽다. 또 지니계수의 극값을 혼동하면 ④처럼 완전평등과 완전불평등의 값을 뒤바꾸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로렌츠 곡선 문제는 먼저 A가 대각선과 곡선 사이의 불평등 면적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그다음 지니계수는 $A/(A + B)$이며 값이 클수록 불평등이 크고, 완전평등이면 0이라는 순서로 판단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지니계수는 A의 비율이고, A가 클수록 불평등이 크며, 완전평등이면 0이다.

NoteBase

문 8.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에서 변동환율제도를 고려할 때, 확대 재정정책과 확대 통화정책에 의해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 환율예상은 정태적이고 물가수준은 고정이다.)

① 확대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불변이다.

② 확대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소득은 불변이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③ 확대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불변이다.

④ 확대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소득은 불변이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한 자본이동이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변동환율제도 아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조정되어 국제수지가 맞춰지므로 재정정책은 환율절상을 통해 구축되어 국민소득 효과가 약해진다. 반대로 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이 환율절하와 순수출 증가를 불러와 국민소득을 늘리고, 완전한 자본이동 때문에 국내이자율은 세계이자율 수준에 고정되어 불변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변동환율제도에서 확대 재정정책은 IS를 우측 이동시키지만 이자율 상승 압력이 자본유입과 환율절상을 불러와 순수출이 감소하므로 국민소득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틀린 표현은 '국민소득은 증가하고'이다. 올바르게는 '국민소득은 불변이고 이자율도 세계이자율 수준에서 불변이다.'이다.
2번: X. 확대 재정정책에서 국민소득이 불변이라는 점은 맞지만, 이자율은 완전한 자본이동 때문에 세계이자율에서 벗어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이자율은 상승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이자율은 불변이다.'이다.
3번: O. 확대 통화정책은 LM을 우측 이동시켜 이자율 하락 압력을 만들고, 그 결과 자본유출과 환율절하가 발생하여 순수출이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국내이자율은 다시 세계이자율 수준으로 유지된다.
4번: X. 확대 통화정책은 변동환율 아래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므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국민소득은 불변이고 이자율은 상승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불변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정책효과를 뒤바꾸면 틀리기 쉽다. 변동환율에서는 재정정책이 약하고 통화정책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완전한 자본이동에서는 이자율이 세계이자율에 묶여 불변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환율제도가 고정인지 변동인지 확인한 뒤, 완전한 자본이동이면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에 고정된다고 판단한다. 그다음 재정정책은 IS, 통화정책은 LM을 움직인 후 환율이 순수출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보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먼델-플레밍에서 변동환율은 재정 약화, 통화 강화, 이자율은 세계이자율에 고정이다.

NoteBase

문 9. 내쉬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져 있을 때 자신의 입장에서 최적인 전략을 내쉬균형전략이라고 부르고 각 경기자가 이 전략을 선택할 때 이를 내쉬균형이라고 한다.

② 어떤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지 않아도 내쉬균형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내쉬균형이 이루어지는 데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약하기 때문이다.

③ 어떤 게임에서 순수전략만 허용할 경우 내쉬균형은 언제나 한 개 이상 존재한다.

④ 우월전략균형은 내쉬균형의 성격을 갖게 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내쉬균형과 우월전략균형의 정의 및 포함관계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쉬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각 경기자가 자신의 최적반응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월전략은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항상 더 유리한 전략이고, 우월전략균형은 모든 경기자가 그런 우월전략을 선택한 경우이다. 따라서 우월전략균형은 내쉬균형이지만, 내쉬균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월전략균형인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옳다.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각자가 자신의 최적반응을 선택하는 전략조합이 내쉬균형이라는 설명이므로 맞다.
② 옳다. 우월전략균형은 각 경기자에게 우월전략이 있어야 하지만, 내쉬균형은 서로의 전략이 최적반응이면 되므로 성립 조건이 더 약하다. 그래서 우월전략균형이 없어도 내쉬균형은 존재할 수 있다.
③ 틀리다. 틀린 부분은 "순수전략만 허용할 경우 내쉬균형은 언제나 한 개 이상 존재한다"는 표현이다. 순수전략게임에서는 내쉬균형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항상 존재가 보장되는 것은 혼합전략 내쉬균형이다.
④ 옳다. 모든 경기자가 우월전략을 선택한 결과는 각자의 최적반응이기도 하므로 우월전략균형은 내쉬균형이다. 그러나 내쉬균형 중에는 우월전략이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③은 순수전략 내쉬균형의 존재와 혼합전략 내쉬균형의 존재를 혼동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내쉬의 존재정리는 혼합전략까지 허용할 때의 결과이지, 순수전략만 놓고는 항상 존재를 보장하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게임이론 선지에서는 먼저 "상대방 전략이 주어졌을 때의 최적반응"이면 내쉬균형,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항상 최선"이면 우월전략이라고 구분한다. 그다음 순수전략인지 혼합전략인지 확인하면 존재 여부 관련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우월전략균형은 내쉬균형에 포함되고,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없을 수도 있지만 혼합전략 내쉬균형은 존재한다.

NoteBase

문 10.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이 각각 쌀과 구리 중 한 가지 상품에 1주일 동안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각 품목의 최대 수량이다. 구리를 생산하는 데 비교우위를 가지는 나라는? (단,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이다.)

<보기>

구분	쌀	구리
갑국	5가마	7톤
을국	1가마	2톤

① 갑국

② 을국

③ 두 나라 모두 구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④ 구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 나라는 없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에 제시된 생산가능량으로 각 나라의 기회비용을 계산하고, 그 결과로 구리 생산의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료 읽는 순서

1. 각 나라가 1주일 동안 쌀과 구리를 각각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한 재화를 1단위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으로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3. 구리 1톤의 기회비용이 더 낮은 나라를 찾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갑국에서 구리 1톤의 기회비용은 쌀 5/7가마이다. 표에서 갑국은 쌀 5가마 또는 구리 7톤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구리 1톤을 위해 포기하는 쌀의 양이 5/7가마이다. 을국의 구리 1톤 기회비용 1/2가마보다 크므로 갑국은 구리 생산의 비교우위가 아니다.
2번: O. 을국에서 구리 1톤의 기회비용은 쌀 1/2가마이다. 표에서 을국은 쌀 1가마 또는 구리 2톤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구리 1톤당 포기하는 쌀은 1/2가마이다. 이는 갑국의 5/7가마보다 작으므로 을국이 구리 생산의 비교우위를 가진다.
3번: X. 두 나라가 모두 같은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는 없다. 구리 생산의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 더 낮은 한 나라만 가진다. 이 문제에서는 을국만 구리 생산의 비교우위를 가진다.
4번: X. 구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 나라가 없다는 판단은 틀리다. 비교우위는 절대생산량이 아니라 기회비용으로 정하며, 을국의 구리 1톤 기회비용이 더 낮으므로 을국에 비교우위가 있다.

오답 포인트

갑국이 쌀과 구리를 모두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므로 갑국이 모든 재화에서 유리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비교우위는 절대생산량이 아니라 기회비용의 크기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교우위 문제에서는 먼저 각 재화 1단위의 기회비용을 상대 재화 기준으로 계산한 뒤, 그 값이 더 작은 나라를 찾으면 된다.

암기 포인트

비교우위는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더 적게 포기하는 나라가 가진다.

NoteBase

문 11. <보기>에서 (가)~(다)에 들어갈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단, 하루 24시간을 여가시간과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보기>
어떤 개인이 임금률의 상승으로 인해 노동공급량(시간)을 증가시켰을 때, 이를 개인의 효용극대화에 기초하여 분석한다면, 임금률의 상승은 (가)인 (나)의 소비를 증가시키거나 임금률 상승으로 인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중 (다)가 크므로 결과적으로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① (가): 정상재, (나): 여가, (다): 대체효과
② (가): 정상재, (나): 여가, (다): 소득효과
③ (가): 열등재, (나): 노동, (다): 소득효과
④ (가): 열등재, (나): 여가, (다): 대체효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임금 상승이 여가와 노동의 상대가격, 여가의 정상재 여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비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여가는 소득이 늘수록 더 많이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는 정상재이다. 임금이 오르면 여가 1시간의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여가는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노동의 상대가격은 낮아진다. 이때 대체효과는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게 하며, 소득효과는 정상재인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이게 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여가는 정상재이므로 임금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커지면 여가 소비를 늘리려는 소득효과가 생긴다. 동시에 임금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높여 여가를 덜 선택하게 만드는 대체효과를 만든다.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했으므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야 하므로 1번이 맞다.
2번: X. (다)는 소득효과가 아니다. 소득효과가 더 크면 정상재인 여가 소비가 더 늘어나고 노동공급은 오히려 줄어든다. 틀린 표현은 '소득효과'이고, 올바르게는 '대체효과'이다.
3번: X. (나)는 노동이 아니다. 임금 상승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대상은 정상재인 여가이다. 틀린 표현은 '(나) 노동'이고, 올바르게는 '(나) 여가'이다.
4번: X. (가)는 열등재가 아니다. 여가는 일반적으로 정상재로 보며, 임금 상승 시 소득효과가 여가 증가 방향으로 작용한다. 틀린 표현은 '(가) 열등재'이고, 올바르게는 '(가) 정상재'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임금이 오르면 노동의 보상이 커진다는 점만 보고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같은 방향으로 착각하면 틀린다. 이 문제의 함정은 '노동공급 증가'라는 최종 결과를 보고 어떤 효과가 더 큰지 역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여가가 정상재인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임금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높여 대체효과상 노동을 늘린다는 점을 잡는다. 마지막으로 최종 노동공급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보고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임금 상승 시 여가는 정상재, 대체효과는 노동 증가, 소득효과는 노동 감소이다.

NoteBase

문 12.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화정책의 금리(이자율) 경로에서 통화량의 변화는 은행의 대출여력을 변화시켜 중소기업이나 신용도가 낮은 가계의 대출에 영향을 주어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② 통화정책의 자산경로에서 통화량의 변화는 주식, 부동산 등 민간이 보유한 자산가격에 영향을 주어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③ 통화정책의 위험선호경로에서 통화량의 변화로 금융 기관의 위험선호도가 바뀌어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④ 통화정책의 대차대조표경로에서 통화량의 변화는 가계와 기업의 순자산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른 대출의 변화가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통화정책의 여러 전달경로 가운데 금리경로와 신용경로, 자산가격경로, 위험선호경로, 대차대조표경로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금리경로는 정책금리 변화가 시장이자율을 바꾸고 그 결과 투자와 소비를 변화시키는 경로이다. 신용경로는 통화량이나 정책 변화가 은행의 대출공급이나 차입자의 자금조달 여건을 바꾸어 실물에 영향을 주는 경로이다. 자산가격경로는 주식·부동산 등의 가격 변화가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경로이다. 위험선호경로는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의 위험추구 성향이 바뀌면서 자산구성 및 대출행태가 달라지는 경로이다. 대차대조표경로는 가계·기업의 순자산과 담보가치 변화가 외부자금조달 비용과 대출 가능성을 바꾸는 경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금리(이자율) 경로'라는 표현이다. 제시된 설명은 통화량 변화가 은행의 대출여력을 바꾸고 중소기업이나 저신용 가계의 대출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므로 금리경로가 아니라 은행대출을 통한 신용경로에 가깝다.

② O: 자산가격경로는 통화정책이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 자산가격 변화가 소비와 투자에 이어져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므로 옳다.

③ O: 위험선호경로는 통화정책 변화가 금융기관의 위험감수 성향을 바꾸고 그 결과 대출이나 투자 포트폴리오가 달라져 실물부문에 영향을 주는 경로이므로 옳다.

④ O: 대차대조표경로는 가계와 기업의 순자산 및 담보가치 변화가 외부금융 프리미엄과 대출 가능성을 바꾸는 경로이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은행의 대출여력', '중소기업', '신용도가 낮은 가계'라는 표현 때문에 신용경로를 묘사하고 있는데, 앞머리에 '금리경로'라고 붙여 개념 이름만 바꿔 놓은 함정이다. 금리경로는 대출공급보다 이자율 변화 자체가 핵심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이자율 변화로 소비·투자가 변한다고 나오면 금리경로로 본다. 은행의 대출공급, 차입제약, 저신용 차주의 자금조달이 나오면 신용경로로 본다. 순자산·담보가치가 나오면 대차대조표경로, 주식·부동산 가격이 나오면 자산가격경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금리경로는 이자율, 신용경로는 대출공급, 자산가격경로는 주가·부동산, 대차대조표경로는 순자산·담보다.

NoteBase

문 13. 수요와 공급곡선이 <보기>와 같을 때, 정부가 소비자(수요측면)에게 10만큼의 종량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경우 시장에서 나타나게 될 현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공급곡선: $Q = 3P$
• 수요곡선: $Q = 100 - 2P$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① 시장에서 거래되는 균형 가격은 이전보다 4만큼 하락한다.
② 소비자는 거래 시 이전보다 단위당 6만큼 더 지출하게 된다.
③ 공급자의 단위당 수입은 이전보다 4만큼 줄어들게 된다.
④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 종량세를 반영해 세전·세후 균형가격, 소비자 부담, 공급자 수취액, 후생 변화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공급곡선 $Q = 3P$, 수요곡선 $Q = 100 - 2P$,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종량세 10이다.
세전 균형은 $3P = 100 - 2P$이므로 $P = 20$, $Q = 60$이다.
세후에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P_c, 공급자가 받는 가격을 P_s라 두면 $P_c = P_s + 10$이다.

사용할 공식

종량세가 소비자에게 부과되면 수요자는 세금을 포함한 가격 P_c를 기준으로 수요를 결정하고, 공급자는 세금 제외 가격 P_s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따라서 세후 수요는 $Q = 100 - 2(P_s + 10) = 80 - 2P_s$, 공급은 그대로 $Q = 3P_s$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소비자 가격과 공급자 수취가격이 세금만큼 벌어지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세전 균형은 $3P = 100 - 2P$이므로 $5P = 100$, 따라서 $P = 20$, $Q = 60$이다.
2. 세후 균형은 $3P_s = 80 - 2P_s$이므로 $5P_s = 80$, 따라서 $P_s = 16$이다.
3. 소비자 가격은 $P_c = P_s + 10 = 26$이다.
4. 세후 거래량은 $Q = 3P_s = 48$이다.
5. 따라서 소비자는 단위당 6 더 지불하고, 공급자는 단위당 4 덜 받으며, 거래량은 12 감소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시장에서 실제 거래될 때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세전 20에서 세후 16으로 4 하락한다. 따라서 '이전보다 4만큼 하락한다'는 맞는 설명이다.
② O: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세전 20에서 세후 26이 되므로 단위당 6만큼 더 지출한다. 세금 10 전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6만 부담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O: 공급자의 단위당 수입은 세전 20에서 세후 16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공급자는 단위당 4만큼 부담한다.
④ X: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소비자는 세금을 포함한 가격 26을 지불하고 거래량도 60에서 48로 감소하므로 소비자잉여는 줄어든다. 올바르게는 소비자의 후생은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소비자가 세금 10을 전부 부담한다고 보면 틀린다. 세후에는 소비자 가격 26과 공급자 수취가격 16을 분리해서 봐야 하며, 후생은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과 거래량 변화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량세 문제는 먼저 세전 균형을 구하고, 그다음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을 분리한다. 이후 세후 수요 또는 공급을 세금만큼 이동시켜 새 균형을 구한 뒤, 소비자 부담분·공급자 부담분·거래량 변화를 차례로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종량세가 붙으면 소비자 가격은 오르고 공급자 수취가격은 내리며 거래량과 후생은 줄어든다.

NoteBase

문 14. 휴대폰과 컴퓨터를 생산하는 국가의 2023년도와 2024년도 가격과 생산량이 <보기>와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2023년이 기준연도임)

<보기>

구분	휴대폰		컴퓨터	
	가격(만 원)	생산량(개)	가격(만 원)	생산량(개)
2023년	20	100	40	20
2024년	30	200	60	50

① 이 국가의 2024년도 명목국내총생산은 9,000만 원이고 실질국내총생산은 6,000만 원이다.

② 이 국가의 2024년도 GDP디플레이터는 200이다.

③ 당해연도 경제활동규모와 산업구조 등을 분석하는 데는 명목국내총생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국민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가, 혹은 경제성장률은 얼마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질국내총생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준연도 가격을 이용해 실질국내총생산과 GDP디플레이터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23년은 기준연도이다. 2024년 휴대폰 가격은 30만 원, 생산량은 200개이다. 2024년 컴퓨터 가격은 60만 원, 생산량은 50개이다. 기준연도인 2023년 가격은 휴대폰 20만 원, 컴퓨터 40만 원이다.

사용할 공식

명목GDP는 당해 연도 가격×당해 연도 생산량의 합이다. 실질GDP는 기준연도 가격×당해 연도 생산량의 합이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실질GDP) × 100으로 계산한다. 이 문제는 2023년이 기준연도이므로 2024년 생산량에 2023년 가격을 곱해 실질GDP를 구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2024년 명목GDP는 휴대폰 30×200=6,000, 컴퓨터 60×50=3,000이므로 합계는 9,000만 원이다. 2024년 실질GDP는 휴대폰 20×200=4,000, 컴퓨터 40×50=2,000이므로 합계는 6,000만 원이다. 따라서 2024년 GDP디플레이터는 $\frac{9,000}{6,000} \times 100 = 150$이다.

선지 판단

1번: O. 2024년 명목GDP는 9,000만 원이고 실질GDP는 6,000만 원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2번: X. GDP디플레이터는 200이 아니라 150이다. 200이라는 값은 명목GDP와 실질GDP의 비율에 100을 잘못 적용하거나 계산을 잘못한 결과이다.
3번: O. 명목GDP는 당해 연도 가격으로 계산하므로 그 해의 경제활동 규모와 산업구조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4번: O. 실질GDP는 물가변동 효과를 제거하므로 국민경제의 장기적 변화나 경제성장률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오답 포인트

기준연도 가격을 써야 하는 실질GDP 계산에서 당해 연도 가격을 다시 쓰면 GDP디플레이터가 왜곡된다. 특히 명목GDP와 실질GDP를 구한 뒤 마지막에 반드시 ×100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2번처럼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민소득 계산 문제는 먼저 기준연도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명목GDP, 실질GDP, GDP디플레이터 순서로 나누어 계산하면 된다. 물가변동을 제거해야 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면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명목GDP는 당해 연도 가격, 실질GDP는 기준연도 가격,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 나누기 실질GDP에 100을 곱한 값이다.

NoteBase

문 15. 갑(甲)은 자신의 용돈 12만 원을 두 재화(*X*재와 *Y*재)의 소비에 지출하며, 두 재화를 완전 대체재로 인식하고 있다. 갑은 항상 *X*재 한 단위를 얻기 위해 *Y*재 세 단위를 포기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X*재의 가격이 *Y*재보다 2배 더 비싼 경우, 갑의 최적 소비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갑은 자신의 모든 용돈 12만 원을 *X*재에 지출할 것이다.

② 갑은 자신의 모든 용돈 12만 원을 *Y*재에 지출할 것이다.

③ 갑은 자신의 용돈 12만 원 중 8만 원은 *X*재에, 나머지 4만 원은 *Y*재에 지출할 것이다.

④ 갑은 자신의 용돈 12만 원 중 9만 원은 *X*재에, 나머지 3만 원은 *Y*재에 지출할 것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대체재에서 주관적 교환비율과 시장가격비율을 비교해 어떤 재화에만 지출하는지가 결정된다는 점을 묻는다.

핵심 개념

완전대체재는 두 재화를 일정한 비율로 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이다. 갑은 X재 1단위를 얻기 위해 Y재 3단위를 포기할 의향이 있으므로 갑이 평가하는 교환비율은 X 1단위 = Y 3단위이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X재 가격이 Y재의 2배이므로 X 1단위를 사는 데 Y재 2단위 값만 포기하면 된다. 즉 시장에서의 X가 갑의 주관적 평가보다 더 싸므로 X재에만 지출하는 것이 최적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갑은 X재 1단위를 얻기 위해 Y재 3단위까지 포기할 의향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Y재 2단위 값만 내면 X재 1단위를 살 수 있다. 갑에게는 X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예산 12만 원 전부를 X재에 지출한다.
2번: X. 틀린 부분은 모든 예산을 Y재에 지출한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갑의 주관적 교환비율보다 시장의 X재 가격이 더 낮아 X재가 더 매력적이므로 전액을 Y재에 쓰지 않는다.
3번: X. 틀린 부분은 X재와 Y재를 함께 사는 내부해를 최적이라고 본 점이다. 완전대체재에서는 단위당 만족이 더 큰 재화 하나에 코너해가 생기며, 이 문제에서는 X재가 우세하므로 8만 원과 4만 원으로 나누어 살 이유가 없다.
4번: X. 틀린 부분은 역시 두 재화를 혼합 소비한다고 본 점이다. 실제로는 X재 1단위를 얻기 위해 시장에서 포기하는 비용이 갑의 주관적 평가보다 낮으므로 9만 원과 3만 원으로 나누지 않고 예산 전체를 X재에 지출한다.

오답 포인트

완전대체재 문제에서 많은 수험생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와 가격비율을 비교하지 않고 중간값 배분을 고른다. 이 문항의 함정은 3대 1이라는 주관적 교환비율과 2대 1이라는 시장가격비율을 비교하지 않으면 3번이나 4번 같은 혼합소비를 그럴듯하게 보게 만든다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대체재가 나오면 소비자가 마음속으로 평가하는 교환비율과 시장가격비율을 먼저 비교한다. 시장에서 더 싸게 느껴지는 재화가 있으면 예산 전부를 그 재화에 지출하고, 두 비율이 같을 때만 여러 조합이 모두 최적이 된다.

암기 포인트

완전대체재는 주관적 교환비율과 가격비율을 비교해 더 값싼 쪽으로 전액 지출하는 코너해가 기본이다.

NoteBase

문 16. <보기>에서 통화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공개 시장 매입
ㄴ. 재할인율 인하
ㄷ.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앙은행의 통화공급 확대 수단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개시장매입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 본원통화를 시중에 공급하는 정책이다. 재할인율 인하는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해 대출과 지급준비 여력을 늘리는 정책이다.
법정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이 예금 중 중앙은행에 묶어 두어야 하는 비율을 낮춰 통화승수를 키우는 정책이다.

선지별 해설

① ㄱ: X. 공개시장매입은 통화공급을 늘리는 수단이지만, ㄴ과 ㄷ도 함께 맞다. 따라서 ㄱ만 고른 ①번은 틀리다.
② ㄱ, ㄴ: X. 공개시장매입과 재할인율 인하는 모두 통화공급 확대 수단이 맞지만, 법정지급준비율 인하도 통화공급을 늘린다. 틀린 부분은 ㄷ을 제외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 모두 포함된다.
③ ㄴ, ㄷ: X. 재할인율 인하와 법정지급준비율 인하는 모두 통화공급 확대 수단이 맞지만, 공개시장매입도 본원통화를 공급하므로 포함되어야 한다. 틀린 부분은 ㄱ을 제외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 모두 포함된다.
④ ㄱ, ㄴ, ㄷ: O. 공개시장매입은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재할인율 인하는 은행 차입 비용을 낮추며, 법정지급준비율 인하는 대출 가능한 자금을 늘려 모두 통화공급 증가로 이어진다.

오답 포인트

재할인율 인하와 법정지급준비율 인하만 정책금융 수단으로 기억하고 공개시장조작을 별개로 생각하면 ③번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공개시장매입도 가장 대표적인 통화공급 확대 수단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인지 줄이는 정책인지는 시중은행이 보유하거나 빌릴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는지로 판단한다. 채권을 사주면 돈이 풀리고, 할인율을 낮추면 차입이 쉬워지며,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대출 여력이 커진다.

암기 포인트

매입, 인하, 인하는 모두 완화이다. 공개시장매입, 재할인율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는 통화공급 확대 방향이다.

NoteBase

문 17. <보기>에서 총수요-총공급(AD-AS)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보기>
ㄱ. 국제유가 상승은 총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ㄴ. 신기술 개발은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ㄷ. 정부지출 감소는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ㄹ. 세금 감면은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AD-AS 모형에서 어떤 충격이 총수요를 이동시키는지, 어떤 충격이 총공급을 이동시키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총수요는 가계·기업·정부·해외의 총지출이므로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변화에 따라 이동한다. 총공급은 기업의 생산여건이므로 기술, 생산비, 조세 부담 같은 공급측 요인에 따라 이동한다. 총수요는 지출 변화, 총공급은 생산여건 변화라는 축으로 구별하면 된다.

선지별 해설

1번: X. 국제유가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를 높이는 공급충격이다. 따라서 총수요곡선이 아니라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2번: O. 신기술 개발은 생산성을 높여 같은 물가수준에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하므로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3번: X. 정부지출 감소는 총지출을 줄이는 수요충격이다. 따라서 총공급곡선이 아니라 총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4번: O. 세금 감면은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기업의 지출 여력을 높여 총지출을 늘릴 수 있으므로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국제유가 상승과 세금 감면을 모두 정책변수처럼 묶어 생각하면 틀리기 쉽다. 국제유가 상승은 생산비를 건드리는 공급충격이고, 정부지출 감소와 세금 감면은 총지출을 바꾸는 수요충격이라는 점을 나눠서 봐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변화 요인이 총지출을 직접 바꾸면 AD, 기업의 생산비·생산성·생산여건을 바꾸면 AS로 판단한다. 그다음 지출 증가면 AD 우측, 지출 감소면 AD 좌측, 생산여건 개선이면 AS 우측, 생산비 상승이면 AS 좌측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지출 변화는 AD, 생산여건 변화는 AS이다. 유가 상승은 AS 좌측, 기술 발전은 AS 우측, 정부지출 감소는 AD 좌측, 세금 감면은 AD 우측이다.

NoteBase

문 18. 폐쇄경제인 어떠한 경제의 총저축이 2조 원이고, 소비가 8조 원, 정부지출이 1조 원일 때, 국내총생산(GDP)은?

① 5조 원

② 8조 원

③ 9조 원

④ 11조 원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폐쇄경제에서 총저축과 소비, 정부지출의 관계를 이용해 GDP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총저축 2조 원, 소비 8조 원, 정부지출 1조 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국내총생산 GDP이다.
폐쇄경제이므로 총저축은 생산에서 소비와 정부지출을 뺀 값과 같다.

사용할 공식

사용할 공식은 $S = Y - C - G$이다. 폐쇄경제에서는 국민소득에서 소비와 정부지출을 뺀 값이 총저축이 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총저축이 2조 원이므로 $2 = Y - 8 - 1$이 된다. 따라서 $2 = Y - 9$이고, 이를 정리하면 $Y = 11$이다. 계산 결과 GDP는 11조 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GDP는 11조 원이므로 5조 원은 맞지 않는다. 이는 총저축 2조 원에 소비와 정부지출을 더하지 않고 일부 값만 반영한 오답이다.
2번: X. GDP는 11조 원이므로 8조 원은 맞지 않는다. 이는 소비액만 GDP로 착각한 오답이다.
3번: X. GDP는 11조 원이므로 9조 원은 맞지 않는다. 이는 총저축과 정부지출을 누락하고 소비와 일부 값만 섞어 계산한 오답이다.
4번: O. 폐쇄경제에서 $Y = C + G + S$이므로 $8 + 1 + 2 = 11$이 되어 정답이 된다.

오답 포인트

폐쇄경제의 총저축을 단순히 소비의 나머지처럼 보거나, $S = Y - C - G$를 $Y = C$ 또는 $Y = C + G$로 잘못 바꾸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폐쇄경제 계산형 문제는 먼저 $S = Y - C - G$ 또는 $Y = C + G + S$ 관계를 떠올린 뒤, 주어진 값을 그대로 대입해 미지수 Y를 정리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폐쇄경제에서는 GDP가 소비, 정부지출, 총저축의 합과 같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9. 어떤 기업의 생산함수가 $Y = L^{0.6}K^{0.9}$이고 여기서 생산요소인 L은 노동, K는 자본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규모수익체증이며, 생산요소 L, K에 대한 한계생산은 체증한다.

② 규모수익체증이며, 생산요소 L, K에 대한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③ 규모수익체감이며, 생산요소 L에 대한 한계생산은 체증, K에 대한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④ 규모수익체감이며, 생산요소 L에 대한 한계생산은 체감, K에 대한 한계생산은 체증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코브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규모수익과 각 생산요소의 한계생산 체감 여부를 함께 판정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규모수익은 모든 생산요소를 같은 비율로 늘렸을 때 산출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다. $Y = L^{0.6}K^{0.9}$에서 지수의 합은 $0.6 + 0.9 = 1.5$이므로 규모수익체증이다. 한계생산 체감은 다른 요소를 고정한 채 한 요소만 늘릴 때 추가 산출이 점점 줄어드는지를 본다. L의 지수 $0.6 < 1$, K의 지수 $0.9 < 1$이므로 두 요소 모두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규모수익체증이라는 판단은 맞지만, 한계생산이 체증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실제로는 L과 K의 지수가 모두 1보다 작으므로 두 요소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② O: 지수의 합이 1보다 크므로 규모수익체증이고, 각 요소의 지수가 1보다 작으므로 L, K에 대한 한계생산은 모두 체감한다.
③ X: 규모수익체감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실제로는 지수의 합이 1.5이므로 규모수익체증이며, L은 체증이 아니라 체감한다.
④ X: 규모수익체감도 틀리고, K의 한계생산이 체증한다는 부분도 틀리다. 실제로는 규모수익체증이며 K의 한계생산도 체감한다.

오답 포인트

규모수익과 한계생산 체감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규모수익은 지수의 합으로 판단하고, 한계생산 체감은 각 개별 지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코브더글러스 생산함수 $Y = L^{a}K^{b}$가 나오면 먼저 $a + b$를 보고 규모수익을 판단한다. 그다음 각 지수 a, b를 따로 보아 1보다 작으면 해당 요소의 한계생산 체감이라고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지수의 합은 규모수익, 개별 지수는 한계생산 체감을 판정한다.

NoteBase

문 20. 두 재화(x재화와 y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효용극대화를 하는 소비자가 있고, 그의 선호는 효용함수 $U = 2x + 2y - 20$로 표현된다. 주어진 효용함수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x와 y는 각 재화의 소비량을 의미한다.)

① 이 소비자는 두 재화를 비재화로 인식하고 있다.

② 이 소비자는 두 재화를 완전 대체재로 인식하고 있다.

③ 이 소비자는 두 재화를 완전 보완재로 인식하고 있다.

④ 이 소비자는 두 재화를 열등재로 인식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형 효용함수에서 두 재화의 관계가 완전대체재인지 판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완전대체재는 한 재화를 다른 재화로 일정 비율로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재화이다. 이때 효용함수는 보통 $U = ax + by$ 같은 선형 형태로 나타난다. 완전보완재는 두 재화를 정해진 묶음 비율로 함께 소비해야 효용이 늘어나는 재화이며 $U = \min\{ax, by\}$ 형태로 나타난다. 비재화는 소비가 늘수록 효용이 감소하는 재화이고, 열등재는 소득이 늘 때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이므로 효용함수의 모양만으로 곧바로 열등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1번: X. 비재화는 소비가 늘수록 효용이 감소하는 재화인데, 주어진 효용함수에서는 x와 y의 계수가 모두 양수이므로 두 재화를 더 소비할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비재화'이고, 올바르게는 두 재화 모두 재화이다.

2번: O. 효용함수 $U = 2x + 2y - 20$은 x와 y가 선형으로 더해지는 형태이므로 한 재화를 다른 재화로 일정하게 대체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두 재화는 완전대체재이다.

3번: X. 완전보완재라면 두 재화가 함께 묶여야 효용이 증가하므로 $\min\{ax, by\}$ 형태가 나타난다. 틀린 표현은 '완전 보완재'이고, 올바르게는 완전대체재이다.

4번: X. 열등재 여부는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 반응으로 판단하는 개념이지 효용함수가 선형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열등재'이고, 올바르게는 이 효용함수만으로는 열등재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재화 간 관계는 완전대체재라고 본다.

오답 포인트

완전대체재와 완전보완재의 효용함수 모양을 뒤바꾸면 틀리기 쉽다. 또 비재화와 열등재는 모두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비재화는 효용의 부호 문제이고 열등재는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 반응 문제라는 점이 다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효용함수가 재화별 소비량의 합으로 선형 결합되면 먼저 완전대체재를 떠올린다. 반대로 최소값 형태이면 완전보완재를 의심하고, 열등재 여부는 효용함수 모양이 아니라 소득 증가 시 수요 변화로 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선형 효용함수는 완전대체재, 최소값 효용함수는 완전보완재이다.

NoteBase